백두산

19호 - 주체91(2002)년 5월 3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김정일총비서 토지정리에 기여한 단위들에 감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황해남도의 10만여정보의 토지정리를 완공하는데 기여한 모범적인 단위들에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은 3월25일공장, 평양고무공장, 원산화학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안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 과학원 용접연구소, 황해남도인민병원, 신천려관, 개성시 동흥인민학교, 문화성 예술인경제선동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토지정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며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물심량면으로 돕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벌리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일

김정일총비서 ≪아리랑≫ 참가자들에게 감사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참가한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과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아 주시고 작품이 새 세기를 대표하는 최고걸작품, 흠잡을데 없이 완전무결하고 성공한 작품으로 창작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참가자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4월 30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감사와 선물전달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가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5월 1일

위대한 선군시대에 이룩된 세기적전변

최근 3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20여만정보의 토지가 정리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이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 황해남도에서 10만여정보의 토지를 대규모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자연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서해곡창 황남땅에서 토지정리사업이 끝남으로써 최근 3년 남짓한 기간에 전국적으로 20여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는 세기적인 전변이 이룩되였다.

우리 혁명앞에 중중첩첩의 난관이 가로 놓이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세기를 두고 내려 오면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와 다른 도들의 많은 땅이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일어 났다.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받들고 군민이 힘을 합쳐 이룩한 이 놀라운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구상하고 결심하시면 기어코 결사관철해 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비상한 정치사상적열의와 굳건한 자립적민족경제의 일대 시위로 된다.

이것은 또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과감히 뚫고 나가며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세상이 보란듯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 같은 의지와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낳은 기적이다.

20여만정보의 토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정리됨으로써 국토의 면모가 크게 달라졌다.

150여만개의 올망졸망한 뙈기논밭들이 산간지대에서는 300~500평, 중간, 벌방지대에서는 800~1,000평, 1,500평씩 되는 56만여개의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였으며 각이한 농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이 종횡무진으로 달릴수 있는 연 1만 3,000여리의 포전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었다.

대자연개조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9만여㎞의 논두렁이 5만 3,000여㎞로 줄어들고 1만 5,000여㎞의 물길이 포전을 따라 규모 있게 형성되였으며 곡식을 심을수 없던 땅들이 옥토로 전환되여 5,000정보의 새땅이 생겨 났다.

새로운 대지로 전변된 협동벌들에서는 관개수와 설비, 자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으며 종합적기계화를 완성하여 기계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보려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될수 있게 되였다.

고산군 란정, 창도군 대백, 통천군 구읍, 의주군 홍남, 곽산군 초장, 강령군 내동, 태탄군 륜정, 재령군 재천, 배천군 수원협동농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농장들에 은정마을, 은덕마을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 선경이 펼쳐 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입니다. 우리는 토지정리와 같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기에 강성대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전국의 토지를 정리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 있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원땅에서 먼저 토지정리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도록 하시였으며 근 20차에 걸치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독창적인 우리 시의 토지정리방식을 제시하시고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휘황한 설계도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토지정리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이 땅을 사회주의국가의 토지답게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산악같이 떨쳐 나섰다.

대규모의 토지정리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가 돌려 지고 매 단계별 전투목표가 수립되였으며 불도젤을 비롯한 강력한 기계화수단들과 자재들이 전국적으로 동원되였다.

인민군군인들은 군대를 믿고 방대하고 아름찬 토지정리전투를 발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전진의 돌파구를 힘 있게 열어 나가면서 혁명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각도 돌격대원들은 인민군대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본 받아 견인불발의 의지와 완강한 투지로 새로운 작업방법과 시공방법들을 끊임없이 받아 들이면서 맡겨 진 과제들을 모가 나게 해제끼였다.

강원도로부터 황해남도에 이르는 토지정리기간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벌린 영웅서사시적투쟁과 그들이 발휘한 숭고한 소행은 우리 인민이 지닌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강성대국건설사에 세기적사변으로 아로 새겨 진 토지정리의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 따라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억척 같은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난시련을 이겨 내며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였다.

위대한 선군시대에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우리 당의 불멸의 토지건설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노동신문 4월 13일

2 종합
- 규탄받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사대굴종행위
- 일제의 조선문화재파괴약탈범죄

3 노작
- 조국광복회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5 세기와 더불어
- 7장 3절 국제당 파견원 (2)

7 칭송
- 친필비는 서있다
-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구원해 주신 은인

8 노동신문 사설
-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9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
-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 충실성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메이데이와 그 유래
- 단결투쟁으로 살길 열자
- 짓밟힌 5.1절을 되찾자
- 보수대연합추진움직임을 두고
- 5.18시민법정추진 광주지역위원회

13 투쟁보도
- 서울시장 이문옥 후보 출마선언
- 경기도지사 김준기 후보 출마기자회견
- 전국연합, 지방선거 후보 31명 결정
- 서천 시민단체들, 유권자 권리찾기
- 한총련, ≪5월 축전 막지말 것≫
- 민족의 쌀 통일로 간다
- 자주여성회(준) 발족식

15 운동강좌
-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4)

규탄받는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사대굴종행위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은 최근 미국에 가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어주고 마치 그 결과로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게 된 것처럼 악담을 늘어놓아 남북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는 각계 민중을 분격케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재야인사 성모씨는 미국에 가서 한 최성홍의 망발은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미상전의 비위나 맞추고 그의 힘을 빌어 어떻게하나 동족을 해쳐보려는 흉악한 속셈을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성홍을 그대로 두면 대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에도 적지 않게 지장을 받는다며 즉시 외교통상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에 사는 회사원 오모씨는 외교통산부장관 최성홍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마치 남북관계를 개선시킨 것처럼 떠든 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용납못할 모독이고 도전이며 참을 수 없는 사대굴종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성홍이 민족앞에 더러운 오점을 남겼다는 걸 명심하고 즉시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모군은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이 이행단계에 들어선 때에 최성홍이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을 찬양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공동보도문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엎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작태라며 이것은 결코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어서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최성홍의 망발을 규탄하며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각계 민중의 목소리는 아주 지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으로 동결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비롯해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해결해나가려는 이북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에 찾아가 상전앞에서 꼬리를 치며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 마치도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의 결과인 듯이 추어주었는데 이것은 사대매국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최성홍과 같은 너절한 인간, 사대굴종사상이 머리끝까지 꽉 차있는 분자들을 그대로 두면 또다시 좋게 발전하기 시작한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성홍은 전 통일부장관 홍순영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규탄을 받고 물러난 것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남북공동선언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치한 지적입니다.

각계 민중은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오직 사대굴종행위만을 자행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을 제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미군철수투쟁과 함께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30일

조선문화재파괴략탈범죄를 절대로 덮어 두지 못한다

1일부 《로동신문》은 《조선문화재파괴략탈범죄를 절대로 덮어 두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예로부터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슬기로 세계를 경탄시키는 수많은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에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 있으며 력사와 문화, 생활풍습을 비롯하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대를 물려 오며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 온 민족문화유산이 지난 날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략탈 당하였다. 일제는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민족의 넋과 재능이 깃든 수많은 문화재들을 강도적으로 로략질해 가는 천추를 두고 씻지 못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사실 일제의 조선문화재략탈행위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기전부터 감행되였다. 일제는 1894년 이른바 《보물수집방법》이라는 법령을 조작발포하고 《보물수집》의 미명하에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을 몰래 훔쳐 갔다. 일제는 보물수집운동을 통하여 1904~1905년사이에만도 개성과 해주를 비롯한 우리 나라의 도처에서 수천기의 고려고분을 도굴파괴하였으며 거기에서 귀중한 유적유물들을 일본으로 실어 갔다. 일제는 이 시기에 《학자》, 《외교관》, 《상인》 등의 탈을 씌운 렴탐군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문화재보관과 분포상태를 샅샅이 조사장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준비밑에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한 직후부터 우리 나라 문화재략탈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1916년 《조선고적연구회》를 조작한 일제는 1931년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발포하고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재략탈을 합법화하였다.

이뿐아니라 《유물보존》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총독부박물관》, 《경구유물보존회》 등 각종 전문략탈기구까지 조작하여 문화재략탈을 본격화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초대《통감》 이또는 당시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등에 보존되여 내려 오던 수많은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문화재들을 빼내여 《천황》과 황족, 귀족들에게 선물로 섬겨 바치였다.

지금도 도꾜 우에노박물관에는 이때 당시 이또가 략탈해 간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이 전시되여 있는데 그 수는 수백점에 달하고 있다.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우리 나라에서 최대의 국보로 되고 있던 4,000여칸짜리 왕궁인 《경복궁》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을뿐아니라 궁의 한 부분을 자기 고향인 야마구찌에 옮겨다 놓고 여기에 《조선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 간 귀중한 보물과 문화유물, 책들을 전시해 놓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 간 문화재는 실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고고학자의 가면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 들었던 고베란 자가 1963년에 한 일본방송기자와의 회견에서 자기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백제고분 2,000기를 발굴하였으며 그것을 장사군들에게 평가시켜 보았더니 3억 수천만원이라고 하였다》고 실토한 사실만 보아도 일제가 얼마나 많은 조선문화재를 략탈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기여 들어 수많은 문화재들을 략탈하였을뿐아니라 무참히 파괴하였다. 1899년과 1907년에 체결된 헤그협약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점령지에서 《력사적기념비, 기예 및 학술상의 제작품을 고의로 압수, 파괴 및 훼손》하는 행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제적규범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1904년부터 23년기간에만도 개성, 강화도, 해주 등지에서 고려의 왕궁을 비롯하여 약 2,000기의 고분에 대한 대규모적인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시조릉인 단군릉을 도굴하려고 릉의 봉분을 파헤치고 무덤칸 천정돌을 제낀 다음 유물략탈을 위하여 관까지 마스고 지어 유골을 마구 헤쳐 버리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일제는 왕릉뿐아니라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유물략탈을 위해 력대 고분들과 무덤들을 마구 파헤쳤다. 이러한 도굴만행에 대하여 광복전 당시 《평양박물관》 관장 고이즈미는 《요사이와 같은 참상이 벌어 지게 된 것은 일본인이 조선의 시골까지 들어 오게 된 때부터의 일로서 일확천금을 꿈 꾸며 조선에 건너 온 그들이 황금사발이 묻혀 있다든가 정월초하루에는 황금닭이 무덤속에서 운다든가 하는 전설이 있는 고분을 요즘 류행인 금광이라도 파는 심산으로 돌아 가며 팠다. 곳에 따라서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헌병들까지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한다》고 실토하였다.

지난 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문화재파괴략탈만행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전통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반문화적,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이것은 결코 지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자기의 죄행을 력사의 흑막속에 숨기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더우기 그들은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그 무슨 《랍치》의 가해자로 걸고 들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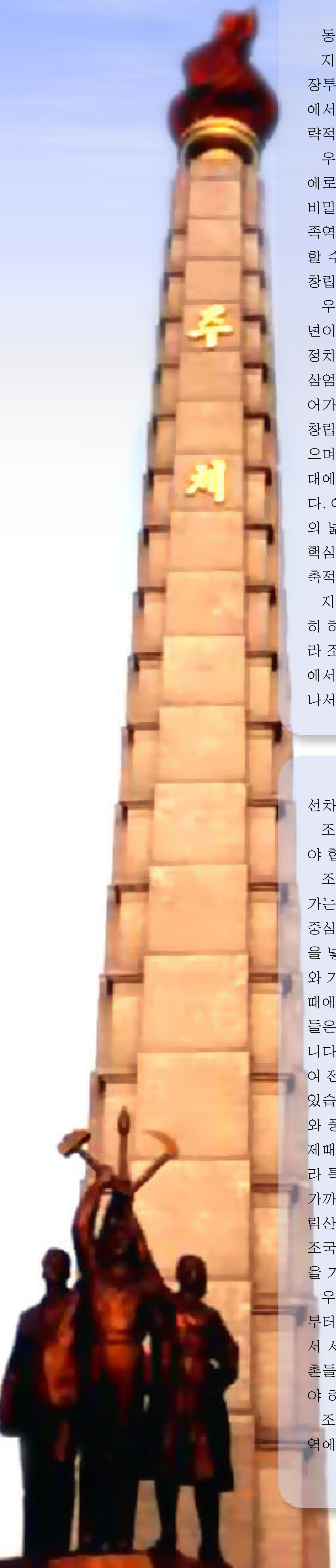
이것은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철면피성을 드러내 보여 주는 행동이다.

일본은 오그랑수를 쓰지 말아야 하며 과거 조선문화재파괴략탈범죄를 인정하고 자기 할바를 다하여야 한다. 즉 파괴한 문화재에 대한 보상과 략탈해 간 문화재에 대한 반환의 법적, 도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5월 1일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장백현 곰의골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 및 정치공작원회의에서 하신 연설 - 1936년 10월 7일



동무들!

지난 2월에 열린 남호두회의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혁명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남호두회의 방침에 따라 국경지대에로 진출하는 과정에 백두산일대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를 꾸렸으며 지난 5월에는 우리 민족역사에서 처음으로 전 민족을 하나로 결속할 수 있는 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선포한지도 반년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적들의 삼엄한 감시 하에서도 광범한 인민들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조직정치활동으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널리 해설 침투하였으며 장백, 무송을 비롯한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많이 내왔습니다. 이 과정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광범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핵심역량도 마련하고 귀중한 정치활동경험도 축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남호두회의와 동강회의 방침에 따라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국경일대와 국내에로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을 튼튼히 마련하며 전체 인민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로 결속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압박과 약탈이 심해짐에 따라 혁명의 사회 계급적 지반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반동세력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비록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일제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는 데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광복회가 창립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조국광복에 대한 드높은 열정을 안고 반일투쟁에 광범히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일제의 탄압과 약탈에 항거하여 파업과 태업, 쟁의와 같은 여러 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는 노동자, 농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워 반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조국광복회 조직을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광활한 지역에 하부조직을 내오고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 압록강연안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튼튼히 꾸려야 그에 의거하여 국내의 넓은 지역과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으며 전반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장백일대는 주민구성으로 보나 지대적 특성으로 보나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해 나가는데서 거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백일대는 조선사람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또한 국내와 잇닿아 있으므로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넓은 지역과 국내깊이에로 오가면서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장백일대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고 그것을 튼튼히 꾸리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에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을 국내깊이에로 확대해 나가는데서 압록강연안의 갑산지구와 신갈파를 중심으로 하는 삼수지구와 풍산지구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갑산지구는 백두산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우리의 지도를 제때에 받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그곳 인민들은 그전부터 혁명적 영향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갑산지구에는 우리와 연계를 맺기 위하여 전국각지에서 모여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신갈파를 중심으로 하는 삼수지구와 풍산지구는 국내 혁명조직들과의 연계를 제때에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북부조선의 산업지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으며 부전령산맥과 낭림산맥을 이용하여 동해안일대와 국내깊이에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산, 혜산, 신갈파, 삼수, 풍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청진, 함흥, 원산, 나아가서 서울, 부산에 이르는 모든 도시들과 농어촌들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시급히 내와야 하겠습니다.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의 넓은 지역에도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동만일대를 비롯하여 만주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일제놈들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국에 와서 민족적 멸시와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받고 있으므로 반일감정이 강하며 조국광복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화룡, 연길, 안도, 왕청, 훈춘, 임강, 몽강 등 조선사람이 살고 있는 만주의 넓은 지역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확대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워야 모든 조국광복회 조직들을 통일적 지도하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되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대상들과 지역들에 조직을 성과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규약에 규정한대로 조국광복회의 하부말단조직으로서 분회를 내오고 그 위에 지회, 구회, 현회 등을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국광복회라고 할 수도 있고 민족해방동맹 또는 반일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밖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광복회 조직들은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지도체계 하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튼튼히 결속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우리 혁명의 기본계급인 노동자와 농민을 받아들여 그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은 우리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통일전선운동에서도 주되는 역량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조국광복회 조직에 노동자, 농민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이 조국광복회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광복회 조직을 건전한 토대위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는 소자산계급, 청년학생, 지식인과 민족주의자, 양심적인 종교인들과 민족자본가들도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투쟁목적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전복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 있는 것만큼 일제를 반대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각계각층 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여야 합니다. 비록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주의자이건 종교인이건 관계없이 대담하게 믿고 조

→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는 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국경일대와 국내에로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할 수 있는 군중적 지반을 튼튼히 마련하며 전체 인민을 조국광복전선에 하나로 결속하여 반혁명세력에 대한 혁명역량의 우세를 보장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여야 합니다. 장백일대와 풍산, 갑산을 비롯한 북부조선일대에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조국광복회 조직에 결속하는 것은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천도교중앙의 상층은 대부분이 지주, 자산계급 출신의 지식분자들과 민족개량주의자들로서 광범한 하층교인들에게 무저항주의를 설교하면서 일제와 결탁하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층교인들도 일제의 악선전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층교인들은 상층과는 달리 조국의 광복과 민족적 독립에 대한 염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천도교중앙의 상층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하층교인들에 대해서는 해설사업을 잘하여 조국광복회 조직에 적극 결속하여야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하층교인들 속에서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책동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지난날의 교인들의 애국투쟁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며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조국광복전선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에 결속하는데서 아무런 파악도 없는 사람들을 망탕 받아들이거나 엄선한다고 하여 응당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의심하고 배척하는 것과 같은 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편이고 누가 일제와 결탁한 원수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갈라 보고 반일적 요소를 가진 모든 애국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속하여야 하며 친일파, 민족반역자, 일제의 주구들을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고 조국광복회 조직에 이색분자들과 정탐분자들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급속히 확대하려면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대중정치사업은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광범한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을 깊이 해설 침투하여야 합니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과 10대 강령에는 전 조선민족이 일치 단결하여 반일전에 총 매진함으로써 일제식민지통치체계를 전복하고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할 데 대한 기본과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은 광범한 인민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굳은 각오를 가지게 하는데서 거대한 작용을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또한 광범한 인민들에게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반동적 본질과 교활성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중정치사업은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와 의식수준도 같지 않고 정치사업이 진행되는 환경과 실정도 같이 않은 조건에서 대중정치사업을 천편일률식으로 하여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치공작원들은 대중정치사업을 제기된 혁명임무와 조성된 환경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설담화와 강연사업, 연극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동무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강에 머물러있을 때에 연극≪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공연하여 군중에게 큰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연을 통하여 가혹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와 일제의 횡포한 만행을 실감 있게 보여주었으며 그런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자면 누구나 다 떨쳐나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호소성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군중 속에서 두 청년이 무대에 달려나와 자기들은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는 ≪자위단≫에 끌려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당장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년들이 그에 호응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군중의 심금을 울리는 대중정치사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입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적을 제압하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는 군사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백두산지구에로의 진출에 황겁한 일제는 지금 수많은 관동군과 위만군 무력을 동원하여 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지난 4월 ≪만주국치안숙정계획대강≫이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치안≫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수많은 무력을 조선인민혁명군≪토벌≫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의 혁명적 영향이 국내에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영활 한 군사활동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광복회 조직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있은 대덕수, 소덕수 전투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과 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혁명적 영향을 막아보려고 발악하는 일제군경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혁명역량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 지휘성원들은 제기된 혁명임무를 명심하고 조성된 정세에 맞게 영활 한 유격전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정치 군사적 패배를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공산주의 대열의 사상적 순결성과 일치성을 보장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하는 것은 당 창건준비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조국광복회 조직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광범한 대중을 결속하는 것은 강력한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데서 필수적 요인으로 되는 동시에 당이 창건된 다음에도 당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잘하려면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은 일제와 싸우는 혁명군대 일뿐 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 투사이며 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입니다.

정치공작원들과 인민혁명군대원들이 인민들을 혁명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자, 선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과 조선혁명의 노선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심중해야 하며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노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군중공작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맡겨진 임무 수행에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조국광복회 조직을 급속히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끝)

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1. 보금자리
2. 낮에는 적의 세상, 밤이면 우리 세상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4. 국제당파견원
5. 백마에 대한 추억

4. 국제당파견원 (2)

우리의 담화는 자기 소개의 경지로부터 상호관심사로 되는 현행 정치문제에 대한 실정의 통보와 의견교환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논의한 것은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문제였다. 국제당연락소일군들과의 연계를 가지면서도 그들과 함께 솔직하고 심도 있는 담화를 해보지 못했던 나에게 있어서 그 논의는 매우 유익한 것이였다. 나는 반성위에게 국제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국제당 노선과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밝혔다.

≪우리는 국제당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참모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국제당은 지난 기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국제적인 연합에 집결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코민테른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앙집권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중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지난 시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당 규약과 노선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동지, 이거 버릇없는 태도라고 나무라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국제당의 처사를 두고 좀 할 말도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반성위의 얼굴 표정을 순간에 긴장시켰다.

≪그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할까? 혹시 무슨 의견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오?≫

≪글쎄요. 의견이랄지 불만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오래 전부터 국제당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좋으니 여기서 속시원히 다 말해봅시다.≫

국제당파견원
리기동(반경유)

반성위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주시하였다.

나는 오늘이야말로 국제당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었던 말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종파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국제당이 지난날 조선공산당의 해체를 선언한 데 대하여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종파야 조선공산주의자들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감자도장 놀음을 하는 거야 인도지나 공산당이나 그밖의 당들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반성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긴장이 아니라 놀라움 같은 것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반성위에게도 나의 그 말은 예상밖의 급습으로 된 것 같았다.

≪나는 국제당 파견원으로서가 아니라 김동무와 다름없는 조선공산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선공산당 해산을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한 국제당의 처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는 바이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소. 조선공산당은 해산됐는데 인도지나공산당이 해산되지 않고 건재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하는 것이오. 그건 호지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 국제당에 인도지나대표로 틀고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그 당시 조선공산주의운동 대열에는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출중한 인물이 없었고 영도핵심이 없었던 것이오.≫

당이 해산되게 된 기본적인 이유의 하나를 지도자와 영도핵심이 없는데서 찾는 반성위의 말은 당 해산의 1차적 원인을 파쟁에서만 찾아보는데 습관된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제당의 인정을 받을 만한 세계적인 지도자의 결핍, 그것으로 하여 조선공산당의 해산을 저지시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는 반성위식의 분석이고 발견이었다.

우리는 국제당 문제와 함께 조선혁명에서 제기되는 실천상 문제를 가지고서도 가치 있는 토론을 하였다.

반성위는 특히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당이 자기 존재를 끝마치고 대다수의 당원들이 해외에 망명하여 남의 나라 당에서 곁방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좌절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당을 새롭게 창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조선혁명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공산당을 창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오. 조선공산당이 해체선언을 받았다고 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당재건의 가능성을 영영 박탈당한 것으로 그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오. 조선사람이 자기의 당을 가지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권리요. 곁방살이도 한두 해이지 한정없이 남의 집에 그냥 얹혀 살수야 없지 않소.≫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반성위의 주장은 카륜에서 채택되었던 우리의 당창건 방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옳습니다. 조선사람이 자기 당을 재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조선혁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집 곁방에서 눈치놀음이나 하며 낄렁낄렁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세해 전에 이미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고 건설동지사란 명칭을 가진 당조직을 내왔습니다.≫

나는 첫 당조직을 내오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것을 결성하고 확대하는 도상에서 직접 체험했던 가지가지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반성위는 나의 말을 주의깊이 들어주었다.

≪내가 공상가라면 김동무는 철저한 실천가라고 할 수 있겠구만.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오. 조선공산주의운동 선상에는 파벌이 너무 많아서 야단이오. 그러니 파벌을 하는 놈팽이들은 인정하지 말고 반드시 젊은 사람들끼리 새 출발을 해야 하오. 종파를 그냥 두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적잖은 종파군들이 왜놈의 개가 되었소. 개가 안 된 놈팽이들 가운데도 종파습성이 골수에 사무쳐서 혁명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헤게모니 쟁탈에만 열중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소. 파벌과 싸우려면 우리가 반일투쟁을 잘해야 합니다. 투쟁과정에 대열이 강화되고 핵심이 묶어지면 그것이 곧 당을 창건하는 밑천으로 되는 것이오.≫

반성위의 이 말은 나를 몹시 흥분시켰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소리는 아니었다. 종파에 오염되지 않은 새 세대 청년들로 당을 창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부터 주장해온 기본방침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조선사람들로 핵심을 꾸리고 그들을 묶어세워 당도 창건하고 조국해방의 대사도 이루고야 말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반성위와 함께 국제공산주의운동 문제와 국제당문제, 조선에서의 당건설문제를 논의하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의 화제는 간도의 민심이 집중되고 있는 소비에트 문제에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인민이 등을 돌리고 침을 뱉으며 경원시하는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반성위의 견해가 어떤지 속시원히 듣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내가 ≪로판, 간도행이 처음이라는데 유격구를 돌아본 감상이 어떻습니까?≫하고 여담삼아 묻자 반성위의 대답대신 단추들을 와락와락 벗기고 옷자락을 활짝 열어제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갑작스레 높여 유격구에 대한 소감을 터놓았다.

≪나는 우선 이 불모의 땅에 유격구와 같은 별천지를 건설한 간도 인민들과 혁명가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소. 간도 사람들이 참으로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소. 그런데 이 훌륭한 별천지에 환영할 수 없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소.≫

나는 반성위의 격한 음성을 듣고 그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감촉하였다.

→

≪유령이라니오.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묻지 반성위는 이치백노인이 내준 담배통에서 독한 써레기를 듬뿍 집어 굵직하게 말기 시작했다.

≪그건 소비에트 좌경노선을 염두에 두는 거요. 이 좌경이 간도 사람들이 그처럼 공을 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소. 만주혁명을 선봉에서 개척해온 간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나도 사실 그 좌경 때문에 머리가 셀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까지 암둔해졌는지 　만나

푯 　대해서도 완전한 문외한들이더란 말이오. 동장영동무는 투쟁경험도 많고 성미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참 실수도 유만부동이지. 국제당에 신소편지들이 날아왔던 게 우연치 않거든.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소.≫나를 바라보는 반성위의 눈빛에는 심심한 연민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나 하나의 마음고생이야 아무리 큰들 뭐랍니까. 나는 좌경의 전횡밑에서 인민이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플 뿐입니다.≫

반성위는 그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이 담배연기를 연방 신경질적으로 뿜어내쳤다.

≪내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 것은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좌경의 쑥대밭에서 혁명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이 탄생하여 유격구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였소. 김동무가 아주 신통한 정식화를 했다고 나도 방금 전에 동장영동무에게 실토했더랬소.≫

≪그러면 반 동지도 인민혁명정부노선을 지지한단 말입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동장영동무에게 왜 그런 말을 했겠소.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해서는 동장영동무도 지지하였소, 그 동무는 인민이 좋다면 좋을 것이라고 한 김동무의 말에서 큰 감명을 받은 것 같더구만. 우리 마음을 푹 놓고 일을 더 잘해봅시다.≫

반성위는 느닷없이 내 손을 의미있게 꽉 잡았다가 놓았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국제당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성위는 계속하여 우리가 별동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유격대를 합법화하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척한 것은 특기해야 할 업적이라고 하면서 동만혁명가들은 앞으로 이 업적을 계속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반성위는 우리의 인민혁명정부노선이 중국당에서 내놓고 있는 민중혁명정권노선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노선전환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만주 문제의 전략을 밝힌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는 중국당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국제당이 작성한 것이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국제당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의를 끈 것을 농촌정권기관으로서의 농민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사상이였는데 농민위원회는 농민과 유격대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면서 평상시 유격대에 식량을 공급하고 무장자위대를 조직하며 당은 전력을 다하여 고농과 빈농을 농민위원회의 지도역량으로 되게하고 그 주위에 중농대중을 묶어세워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런 즉 이것은 국제당이 정권분야에서 좌경적인 소비에트 노선의 불합이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새로운 정권형태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되며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인민혁명정부노선의 정당성을 실증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반성위는 농민위원회라는 그 명칭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다. 그는 농민위원회가 소비에트보다 만주지방 실정에 더 적합한 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고농, 빈농의 본위로 나간다면 자기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비해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계급계층을 다 망라하는 통일전선적인 인민혁명정부 형태가 더 좋고 발전적인 것만큼 정권형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지로 써서 국제당과 만주성위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까짓 명칭이야 농민위원회건 인민혁명정부건 뭐랍니까. 시책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민혁명정부를 내올 수 있는데는 인민혁명정부라 하고 농민위원회를 내올 데는 농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내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로 반성위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종시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

≪총체적으로는 옳은 말이오. 그러나 정권기관의 명칭은 인민의 마음에 들어야 하오. 아무래도 국제당에 이 문제를 상정시켜야 하겠소.≫

그 후 반성위가 결심대로 국제당에 편지를 보냈는지 그것은 나도 모른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동만의 모든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는 인민혁명정부나 농민위원회로 교체되었고 공농유격대는 반일인민유격대로 개칭되었으며 적위대는 반일자위대로 개편되었다.

반성위의 출현은 유격구의 낡은 질서를 뒤흔들어놓은 회오리바람으로 되었다. 우리가 길림시절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온 혁명에 대한 주체적 입장은 국제적인 지지와 고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우리가 내놓은 모든 노선과 방침들을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검증받게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국제당이 하는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덮어놓고 다 좋다고 하거나 그 지령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였다. 나는 국제당의 처사에 대하여 존중시하면서도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이익의 견지에서 그것을 주체성있게 대하였다.

국제당의 전략이나 처사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석연찮은 문제로 보았던 것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서의 조선의 존재와 조선혁명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취급방법이였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이상으로부터 현실로 되었을 때 만국의 공산주의자들앞에는 10월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그 성과를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레닌은 1919년에 제3국제당을 조직하였다. 국제당의 역사적 사명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기 위한 전 세계 노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투쟁을 국제적 범위에서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였다. 그것은 제1, 제2 국제당들이 지니고 있던 사명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는 전투적 사명이였다. 국제당의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당면한 투쟁과업의 하나는 쏘련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이였다.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의 확대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었고 또 그것을 떠나서는 10월혁명의 성과를 세계적 범위에로 확대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쏘련을 옹호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구호로 되고 그 구호를 관철하는 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피하였고 또 절실히 필요하였던 이러한 관계는 국제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각국 공산당들을 쏘련의 앞잡이로 보거나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배족적인 무리로 치부하는 반공분자들과 부르주아 반동이론가들이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자기들앞에 지워진 국제주의적 임무와 민족적 임무를 옳게 결합시켜나가야 했다. 국제당도 역시 이 점을 응당 중시해야 했다. 국제당이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감당하려면 승리한 사회주의 진지를 지키는데 모를 박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공산주의운동, 특히 제국주의의 억압속에서 신음하는 식민지 약소국가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진심을 도와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제당은 이 요구에 낯을 잘 돌리지 않았다. 국제당의 일부 일군들은 큰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대해서는 요란하게 떠들면서도 작은 나라들의 혁명문제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제멋대로 처리하였다. 쏘련을 옹호하는 국제적인 성새를 쌓아나가는데서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한 몫을 차지할 수 있는가에 따라 매개 나라의 혁명을 대하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에서는 너무나도 차별이 많았던 것 같다.

국제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일부 일군들과 이론가들은 큰 나라에서의 혁명운동이 승리하면 그와 인접한 작은 나라의 혁명투쟁이나 독립운동도 스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견해를 유포시켰다.

비유해 말하면 팽두이숙과 같은 이치를 담고 있는 견해라고나 할까. 팽두이숙이란 머리가 익으면 귀도 저절로 익는다는 뜻이다.

이런 견해는 작은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체를 자기 자신의 힘이며 자기나라 인민의 힘이라는 자주적 입장을 떠나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 사대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으며 큰 나라 공산주의자들속에서는 작은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하는 대국본위주의적 경향을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탄생과 국제공산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사변에서 큰 힘을 얻고 그것을 이상으로, 등대로 바라보며 투쟁의 불길 속을 헤쳐가던 각국 혁명가들의 국제당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신뢰와 순정에 때가 끼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고 국제공산당이 창건된 후 공산주의사조에 대한 축복과 동경의 파도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온 세계를 휩쓸었다. 세계 각국의 이름있는 인사들속에서 공산주의 신봉자 대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유일무이한 미래라고 본 시대의 선각자들 중 적잖은 사람들은 소속과 신앙에 관계없이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나 국제당과 연계를 자기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내일 계속)

송시

친필비는 서있다

이 나라에 드리운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셔주시려
그리도 노고에 찬 먼길을 걸어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이
저 글발에 빛나고 있다

갈라진 겨레의
피눈물에 젖은 이 강토를 안으시고
수령님 지새워오신
기나긴 세월의 낮과 밤이
오늘도 저 글발 위에 어리어 온다

준엄히 젖어오는 눈길로
이 땅, 이행성에 그 어디서나
온 겨레가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친필비

외세의 칼에 맞은 깊은 상처가 *** 아프게
가슴을 허비는 땅
민족의 그 비극을 영영 가셔줄
태양의 빛발을 안고
여기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오- 불멸의 저 글발앞에
삼가 발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머리숙인
민족의 순결한 양심이여! 애국의 넋이여!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의 고통에 피흐르는
세월이여

뜨거운 격정의 눈물로 조용히
거룩한 저 글발을 **한다
어버이 수령님 생애 마지막 날에
통일의 대경륜을 펼치시며 남기신 그 친필
우리 장군님 화강석비에 새겨
조국과 민족앞에 높이 세우셨나니

반만년의 이 **
민족의 창창한 앞길에 태양은 빛난다.
그 햇빛 꺼질줄 모르는 하늘아래서
무궁토록 번영할
내 조국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오-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김 일 성
위대한 존함과 함께 영원할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
그 존엄 높은 모습으로

어버이 수령님 그토록 바라신 통일된 삼천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위에 기어이 일떠세우실
장군님의 결심 장군님의 의지를 안고
위대한 친필비는
여기 강토의 한복판에 높이 서있다

흠모

세계 사회주의운동을 구원해 주신 만고의 은인

권위있는 볼셰비키공산당 서기장은 ≪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일시적으로 좌절됨으로써 세계사회주의와 혁명운동의 중심은 세계 자본의 집중적인 안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로 옮겨졌다. ≪평양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대한 업적이다. ≪평양선언≫의 채택은 국제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후퇴가 끝나가고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반공격을 준비하고 시위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명했었으며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은 ≪19세기중엽의 공산당시원이 마르크스진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운동의 개시를 선포한 기념비적 이념이었다면 20세기말엽의 ≪평양선언≫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재건과 새로운 앙양을 선포한 역사적 강령≫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영국신문 ≪에이션타임스≫지 정치주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세계사회주의위업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혁명적 당들과 인민들이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하고 전진시켜 나가도록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고 세계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만대의 은인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였고 프랑스 10월8일혁명운동 총서기는 ≪세계 혁명가들이 모두 격찬하고 있는 **김정일**장군은 인류의 최고 두뇌이시며 우리 시대 사회주의운동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리고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사회주의는 승리되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도 승리적으로 전진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으며 폰란드 공산주의동맹(프롤레타리아트)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그분께서 밝혀주시는 전략전술대로만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이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굳게 다지게 된다. 세계는 그분을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라고 격정에 넘쳐 말했습니다.

주체86 (1997)년 8월 ≪미국의 소리방송≫은 ≪오늘 현 국제당 정부가 사실상 평양으로 옮겨졌다고 말하여도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조선에는 공산주의이념에 가장 투철한 **김일성**주의자이신 **김정일**영도자가 건재해 계시고 그 정치실력이 세계의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건재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10월에는 ≪≪평양선언≫이 힘있게 울려나와 19세기말, 21세기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됐으며 이후에 평양에서 울릴 종소리는 한때 모스크바 크레믈린 종소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 것처럼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한데 묶어세워 공산주의위업재생에로 힘있게 추동할 것이다. **김정일**영도자가 실제적으로 세계 공산주의의 수령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사회주의위업의 든든한 수호자이시고 영도자이시며 인류에게 광명한 미래를 줍니다. ***** 세계가 공인하는 세계 사회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자

노동신문 사설 - 주체91, 5월 1일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 깊게 기념하고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5.1절을 맞이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인 5.1절은 세계적범위에서 로동계급의 단결과 련대성을 시위하는 혁명적명절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정의와 진리,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로동계급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끝까지 다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지금 우리 로동계급은 당이 지펴 준 새 세기의 봉화, 라남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올해의 5.1절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떨쳐 나선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의의 깊은 명절로 되고 있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핵심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도 선봉적역할을 할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령도계급, 사회주의건설의 핵심부대이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은 로동계급의 역할에 크게 달려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발전의 력사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과 무비의 헌신성을 지니고 완강하게 투쟁하여 온 우리 로동계급의 영웅서사시가 찬란히 아로새겨 져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로동계급의 억센 마치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며 창조와 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워 왔다. 광복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한것도 우리 로동계급이며 전후 재더미속에서 천리마대진군을 일으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앞장 선것도 우리 로동계급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비록 간고하였지만 당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로동계급이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수 있었다.

우리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성과 영웅적투쟁정신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였다.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우리 로동계급은 깨끗한 혁명적량심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었다. 우리 로동계급속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기계설비만은 베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혁명임무수행에 투신한 자강도로동계급과 같은 충직한 혁명전사들도 있고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 매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도 있다. 이런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가는 훌륭한 로동계급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다. 사회주의건설의 핵심부대로서의 우리 로동계급의 불패의 위력은 오늘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더욱 높이 떨쳐 지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념원이였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위업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일떠세워 주신 사회주의조국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확고한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강한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민족자주정신이 강하면 령토가 크지 않고 인구가 많지 않아도 대국을 건설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자체의 힘으로 부강번영하는 강국을 건설할수 있는 길을 밝힌 위대한 자주의 기치이다. 민족자체의 힘으로 대국을 건설할수 있는 방도를 과학적으로 천명한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리론은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민족의 전도에 대한 굳은 확신을 북 돋아 주고 있다.

조선로동계급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은 민족자주정신이 강한데 있다.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지난 기간의 실지투쟁을 통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의 힘을 믿고 투쟁할 때 못해 낼 일이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지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우리의 힘으로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로동계급은 견결한 반제적립장을 지니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의 강성대국건설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새 세기에 들어 와서도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제는 최근년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군사적위협과 압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가로 막아 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않고 반제적립장을 고수하여 온 우리 당의 혁명적조치가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반제적립장이 가장 투철한 혁명적계급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고 적들의 회유기만책동에는 혁명적원칙, 로동계급적원칙으로 맞서며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강권과 전횡을 꺾어 버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견결한 반제적립장은 세상에 널리 알려 져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양보와 후퇴는 곧 죽음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반제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고 있는것이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 나가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을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은 언제나 절대적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후 어려운 시기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지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 지난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기에 자강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사회주의수호정신인 강계정신이 창조될수 있었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타오를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로동계급이 일하는 공장, 기업소를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령도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올해의 뜻깊은 명절들을 빛나게 장식한 기세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체 로동계급은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옹위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의 최고발현이다. 수령결사옹위에 강성대국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는 길이 있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 참된 길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이시며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제일생명이며 최대의 사명이다.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키며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 바쳐 사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며 장군님과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는 신념의 동지, 의리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동지애의 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선군혁명로선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선군을 떠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선군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전체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여기는 기풍을 계속 높이 발휘하며 한손에는 총을 들고 한손에는 마치와 낫을 들고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다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원호하는데서 로동계급이 앞장 서야 한다. 로동계급은 사탕알은 없어도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혁명적립장을 지니고 국방력강화와 관련된 과업들을 제일차적문제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라남의 봉화 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것은 현 시기 로동계급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라남의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한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전형이다. 라남의 정신, 라남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 나갈 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솟구쳐 오를수 있다.

우리는 라남의 로동계급처럼 혁명과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내며 모든 부문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이 건설하는 공장, 기업소와 건축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고 후대들에게 떳떳이 물려 줄수 있게 최상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이 맡겨 준 임무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 막는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앞으로도 인류의 자주위업과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로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와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뿐이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김일성**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쳐 나가자.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6회
학사 한원용선생 - 주체91, 4월 30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조선 근대 역사의 첫 시기부터 대를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신 가장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이고 그이의 혁명 일가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였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였다. 그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였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정은 일가분들 모두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였고 위대한 혁명가들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무

무장성원들의 모임을 지도하시는 김형직선님

엇보다 먼저 대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애국충정을 다 바쳐온 애국자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만경대 가문이 걸어온 전 역사적 과정이 잘 말해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1866년 8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해적 행위를 하던 미제침략선 셔먼호를 대동강에 수장해 버리는데 앞장에 선 애국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보연선생님과 증조할머님이신 리보익여사께서도 자제분들 모두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떳떳하게 살도록 교양하시고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우신 애국자들이십니다.

김보연선생님께서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일에 나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위한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이시라는 것은 주체37(1948)년 4월에 있었던 사실이 잘 보여줍니다. 그때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의 김구일행도 참가했습니다. 김구일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하고 김보연선생님께서 나라가 광복된 후에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김구는 매우 놀라와하면서 손주님을 일국의 영도자로 두신 분이 어찌하여 이런 엄한 농사일을 하시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김보연선생님께서는 손주는 영도자이지만 나야 농사군이 아닌가 예로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농사군인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우리 손자가 정치를 잘 할 것이 아닌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선생님께서 지니신 애국충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증조할머님이신 리보익여사께서도 자제분들을 대 바르고 굳세게 키우셨고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애국의 지조를 지키신 애국자이십니다. 광복전에 일제놈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귀순공작을 하느라고 여사를 엄동설한의 만주산야에로 끌고 다닌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사께서는 적들을 노복처럼 호령하면서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굳세고 당당하게 싸우시면서 애국의 지조를 지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또한, 혁명을 위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쳐 헌신한 위대한 혁명가의 가정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할아버님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혁명 일가분들의 혁명적 교양을 받으셨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열렬한 애국자의 역사, 위대한 혁명가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수놓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김형직선생님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셨고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셨습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을 지니시고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셨습니다. ≪지원≫이란 글자 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로써 이것은 선생님께서 지니신 좌우명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3월에 평양에서 당시 반제적 입장이 가장 철저했고 그 조직적 규모가 제일 컸던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지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후 조선국민회 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셨을 때는 물론이고 출옥 후에도 자신의 한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혁명사업에 그처럼 헌신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5일 만3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셨습니다. 남자의 나이 32살이면 한창시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조선독립을 위해 혁명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서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귀중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이란 ≪지원≫의 사상, 3대 각오, 동지획득의 대한 사상, 두 자루의 권총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3대 각오란 아사, 타사, 동사 다시말해서 혁명을 하지면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진 이 유산은 그대로 조국과 혁명에 대한 혁명가로서의 그이의 헌신성과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할머님이신 강반석여사 역시 한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다 바치신 혁명가이셨습니다. 여사께서는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도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우셨습니다. 여사께서는 주체15(1926)년 11월 우리 나라 첫 혁명적 여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조국의 광복과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여성들을 적극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여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준비하실 때에는 군복제작을 비롯한 여러 준비사업을 맡아하시여 첫 무장대오의 탄생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렇게 혁명사업에 전념하시던 여사께서는 주체21(1932)년 7월 31일 40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은 할아버님이신 김형권동지와 삼촌이신 김철주동지도 어려서부터 혁명투쟁에 참가해서 용감하게 싸우신 혁명가들이십니다. 김형권동지는 일제에게 체포되시여 옥중에서 견결히 싸우다가 서거하셨고 김철주동지도 혁명투쟁을 벌리시다가 주체24(1935)년 6월, 19살의 꽃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외삼촌들이신 김기준동지와 김기송동지들도 조국광복의 성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용감히 싸우신 혁명투사들이셨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일가분들 대부분은 30대 안팎에, 어떤 분들은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나이에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승리를 위해 이국의 산야나 철창속에서 고귀한 생을 마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정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친 혁명적 가정이라는 것은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어머님이신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이민위천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도 조국통일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직무실에서 순직하신 우리 조선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께서도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충실히 받드시고 생의 마지막까지 혁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의 귀감이십니다.

보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일가분들 모두는 이처럼 대대로 애국충정을 다바친 애국자, 혁명사업에 헌신한 위대한 혁명가들이셨습니다.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이런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풍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걸출한 인간, 인민의 영도자, 위대한 혁명가, 21세기의 태양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으로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4권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사회의 법칙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백두산 밑에서는 백두의 정기를 타고난 후대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고 회고하셨습니다.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혈통을 이어받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양을 받은 사람은 애국자로 혁명가로 되기 마련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혁명 일가분들의 혁명적 교양을 받으셨기에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열렬한 애국자의 역사, 위대한 혁명가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수놓아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계신 특출한 천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6회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7회
학사 김창호선생 - 주체91, 5월 1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정이 조선근대역사의 첫 시기부터 대를 이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다바쳐 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라는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일가분들 모두가 열렬한 애국자, 혁명가들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가정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의 영도자의 풍모를 갖추고 21세기의 태양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한 고귀한 터전으로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6번에 나누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리실때부터 남달리 영특하고 뛰어난 천품을 지니셨다는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다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품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무한히 사랑합니다.≫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발현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드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그이께서 어린 시절부터 위대한 수령님 한분 만을 아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 하시려는 충성의 마음을 지니고 계신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만 계셨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 고향집을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품을 안으신 증조할아버님이신 김보연선생님께서는 **김정숙**동지께 애국의 넋을 자랑으로 삼아온 이 집안의 혈통을 이어갈 증손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키워 나라의 창창한 대를 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보연선생님께서는 어리신 장군님 앞에 고이 간직해 두셨던 붓과 벼루를 내놓으시며 ≪이것은 너의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는 여기에다 먹을 갈아 ≪지원≫이라는 글을 썼다. 나라 찾을 큰 뜻을 가져야한다는 뜻이였지. 바로 그 뜻대로 너의 할아버지는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단다. 그 다음은 너의 아버지가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썼다. 내가 짚신을 삼아 판 돈으로 먹과 붓을 사다주면 그것이 다 닳도록 쓰더구나. 그러더니 정말 나라를 찾고 돌아오지 않았니.≫ 너의 할아버지의 뜻을 너의 아버지가 이었다고 하시며 우리 증손이는 무슨 글을 쓰겠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붓을 들어 흰종이 위에 ≪**김일성**장군 만세≫ 라고 정성담아 쓰셨습니다. 김보연 선생님께서는 무릎을 치시며 ≪옳다. 네가 만경대 집의 혈통을 타고 났구나. 암 그렇게 써야하고 말고, 네가 아버지를 받들어 우리 나라를 훌륭히 빛내여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보연선생님께서는 증손자분이 어린 나이에 붓글씨를 척척 쓰시는 것도 대견스러웠지만 아버님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지극한데 더 감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가지 사실을 놓고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셨을 때부터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과 대를 이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시려는 굳은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해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 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은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해 애쓰신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기쁨, 만수무강은 우리 장군님의 모든 활동의 목표이고 생의 신조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려셨을 때부터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해서 깊이 마음 쓰신 실례는 많습니다. 주체37(1948)년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그날도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출근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바래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유다르게 흔들렸습니다. 며칠째 내린 빗물로 해서 길이 씻기고 패여 울퉁불퉁해 졌던 것입니다. 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리신 그이께 아버님께서 고르롭지 못한 길로 지나가셨으며 얼마나 불편해 하셨겟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께 길에다가 주단을 깔면 자동차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길에 주단을 깔아드리고 싶으신 그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정말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모래를 펴서 길을 고르롭게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잠시 주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택 주변에 있는 모래무지가 어리신 아드님께서 씨름도 하시고 착굴놀이도 하시는 놀이터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놀이터가 없어져도 아버님께서 편안하시기만 하면 된다시며 모래를 날다가 길을 닦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길은 모래에 덮여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동차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길이 아주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례입니다. 주체38(1949)년 여름 어느날 아침,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정원을 산보하시면서 낮게 드리운 추리나무가지들을 손으로 미시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출근하시자 톱을 드시고 정원길 낮게 드리운 추리나무가지들을 잘라 버리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왜 자르는가 하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산보를 하시다가 이 추리나무가지에 얼굴을 다칠뻔 하셨다고 하시며 아버님께서 산보를 하시는데 방해되는 가지를 다 잘라버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리신 그때부터 이처럼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일에는 스쳐 지나보내는 일이 없으셨고 수령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한 생각뿐이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다음으로 경애하는 그이께서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기 위해 마음을 쓰신데서도 높이 발현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리신 그때부터 어버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마음 쓰셨습니다. 그이께서 어렸을 때 있은 일입니다. 그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 늦게까지 사업하시다가 퇴근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어버이 수령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식사를 하고 쉬려고 하실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 노래를 하나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께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피곤해 하시는 기미가 보이자 피곤을 푸시라고 자청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이께 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약속이나 한듯이 **김정숙** 동지께서는 풍금을 타시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훗날 이에 대해서 회상하시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 백두광야를 주름잡으며 일제를 족치던 역사의 그 나날들이 회상되면서 어느새 피곤을 다 사라지고 분발하여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례입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많은 꽃들 가운데서 은방울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꽃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어리신 그이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꽃을 피워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화분에 심어 놓은 꽃을 피우시려고 햇빛을 따라 이방 저방으로 화분을 옮겨 가셨고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시면서 정성 다해 가꾸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키우신 은방울꽃을 주체38(1949)년 4월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버이 수령님께 올리시여 기쁨을 드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몇가지 실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버이 수령님께 바치신 충성심의 일단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수령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풍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품성입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해 주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발전 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성심은 금수산 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려주시고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해 주신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충성심이 그처럼 숭고한 것이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은 ≪진짜 충신이며 나에 대한 그의 충성을 따를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교시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시는 충신의 최고 화신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서부터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예지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단결투쟁으로 살길 열자

오늘 1300만 노동대중은 세계 노동자계급의 피어린 투쟁의 전취물인 국제노동절 11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절은 세계의 모든 노동대중이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과 권익을 옹호하는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위하여 단결을 더욱 더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식민지 이 땅의 노동현실은 참혹하기만 합니다. 저주할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으로 노동현장에서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은 800만의 실업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맨주먹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무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자살은 가장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고 노동자의 자녀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돼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일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도 다를바 없습니다. 그들은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민영화, 해외매각책동으로 언제 직업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속에서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쥐꼬리만한 임금마저 악덕업주들이 불황을 구실로 제때에 지불해주지 않아 몇달씩 체불되고 있고 높은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등 살인적인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악덕업주들의 비인간적 처사로 인해 산재는 해마다 늘어나고 그로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세계적인 산재왕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노동대중은 미국이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권력과 자본의 착취와 억압속에서 중세기적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노동대중들로 하여금 단결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벌여 살길을 열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동대중이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주인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우리 노동대중이 생존권과 민주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약탈때문입니다.

≪한국≫경제를 저들의 식민지하청경제로 전락시키고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를 강요한 것도 미국이며 오늘은 신자유주의 경제화의 미명하에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해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거리에 내몰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북강경정책≫과 ≪악의 축≫, ≪핵태세 검토≫망발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자주통일운동을 가로막고 이 땅을 핵전쟁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공동보도문이행이 실천단계에 들어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간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도 미국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철천지원수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노동대중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의 민주화, 노동해방이 이루어지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발전노조민영화반대, 구조조정반대, 임금인상 등 생존권쟁취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양민학살진상규명 및 사죄보상요구, 주한미군기지철폐, 무기강매반대투쟁을 거족적인 반미항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에 충실한 졸개인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분자들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도 다같이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족분열의 가장 큰 희생자는 우리 노동대중입니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참된 삶의 활로가 민족자주통일에 있다는 걸 명심하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에 혼신을 다바쳐야 합니다.

메이데이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위력과 연대를 시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대중은 전세계 노동자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살길을 열자면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합니다.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한 노동운동의 사령탑인 민주노총을 튼튼히 꾸리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야 합니다.

노동운동가들과 핵심들은 현장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자들속에서 의식화작업을 꾸준히 벌여 그들의 계급적 자각을 높이는 한편 산별노조건립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민주노조의 조직적 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을 옳게 판단하고 그에 걸맞게 정확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제시하며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투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1300만 노동대중은 메이데이의 단결의 정신을 계승해 단결하고 또 단결해 투쟁함으로써 노동자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할겁니다.

메이데이 112돌 기념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

짓밟힌 5.1절을 되찾자

오늘 우리 1300만노동대중은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명절인 112회 메이데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철쇄를 끊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해방을 위해 떨쳐 일어난 역사의 날인 5.1절은 세계의 모든 노동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고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단결된 위력을 과시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을 때마다 지난날 우리 노동대중이 인간의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나날들을 더듬어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노동대중은 세계 노동대중과 더불어 참으로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투쟁들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비도 넘기며 자기발전의 새로운 길을 꿋꿋이 걸어왔습니다.

투쟁의 폭풍을 헤치며 오늘에 이른 우리 노동대중은 가열찬 혈전속에서 비로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 노동운동이 민주민권과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당당한 주력부대로, 결정적 역량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노동대중은 112회 메이데이를 맞는 오늘에 이르도록 아직까지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어느 것 하나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노동3권마저 제도적으로 부정, 유린당하고 공정한 노동의 댓가가 가혹하게 착취당하는 식민지 이 땅에서 노동대중은 정치적 무권리와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침탈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결과 이 땅의 노동대중은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어 실업자로 전락되고 부익부빈익빈의 썩은 이 사회를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참극이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의 엄청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산생시키는 세계 최악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살인적인 기아임금, 그리고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한 요구마저 가혹하게 짓밟히는 암담한 처지에서 우리 노동대중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참혹한 상황하에서 우리 1300만 노동자들은 인간의 천부적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대중이 자기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필연적인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노동대중이 주5일근무제전면도입과 구속노동자석방 등을 요구해서 대규모적인 도심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도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당국은 노동자들의 이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니 불법파업이니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고 노동운동을 말살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오직 투쟁만이 우리 노동대중이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찾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 길만이 유일한 출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더 빼앗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1300만 노동대중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의 주도하에 지금 각지의 사업장들과 업체들에서 주5일근무제전면도입 등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우리 노동대중의 투쟁에서의 승리는 단결에 있습니다. 단결은 승리의 기본열쇠이며 메이데이의 기본정신입니다.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메이데이를 맞으며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결된 위력으로 이 땅에서 짓밟힌 5.1절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조간, 기업간, 업체와 업종간, 부문과 지역간에 굳게 연대해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함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단결과 투쟁의 길에 용약 나서야 합니다. 우리 노동대중의 진정한 해방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있습니다. 당면해서 노동대중은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을 반미투쟁에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미제의 날로 가중되는 경제침탈책동을 결사배격하여야 하며 남북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공동보도문의 이행을 파탄시키고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에 되돌려 세우려는 미제의 무모한 대북강경책동에 준엄한 철퇴를 안기기 위한 투쟁을 거족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1300만 노동대중은 5대양 6대주에서 높이 울려퍼지는 메이데이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의 생존,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한 메이데이광장에 나서 5.1절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메이데이 112돌 기념방송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 결성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18일 광주에서는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결성식에서 한 연설들을 통해 알려진데 따르면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를 결성하는 취지와 그 목적은 광주학살때의 미국의 책임을 단죄하고 진상규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앞으로 미행정부를 상대로 공개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하는 반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입니다.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의 결성은 5.18광주대학살만행의 원흉인 미국의 만고대죄를 단죄, 고발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것을 바라는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온 국민의 일치한 의사와 염원에 따른 의롭고 정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18광주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하에서 쌓이고 맺힌 우리 민중의 분노의 폭발로써 자유와 민주, 통일을 위한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지배층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사주하여 봉기자들을 수천명이나 무참히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0.26사태이후 사회각계에서 유신독재단죄를 주창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을 느끼고 있던 미국은 광주에서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수십만의 각계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절규하며 항쟁의 거리에 나서자 공포에 질려 백악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무쇠주먹으로 봉기를 진압할데 관한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였던 위컴은 자기 휘하에 있는 전두환을 이른바 친위사단이라고 하는 20사단을 비롯한 3개사단의 ≪한국군≫ 기갑부대를 광주에 긴급 출동시켜 유례없는 살육만행을 자행케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광주민중봉기진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주한미군에 경계령을 내리고 임의의 시각에 출동할 수 있는 만전의 준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축으로 한 미사일구축함 2척과 순양함, 보급함 등 7척으로 구성된 기동타격군을 ≪한국≫주변 앞바다에 투입시켰고 미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 그리고 공중경보통제기 2대를 역시 ≪한국≫주변에 급파해 광주시민학살만행을 지원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당국자들은 이같이 무력으로 광주민중봉기를 진압하려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브레지스키가 광주시민을 ≪무쇠주먹으로 진압해야한다≫고 폭언하고 미국무성대변인 랩스턴이 ≪미국은 자기 동맹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한국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 지워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한 사실과 특히 전미국무부대변인 호젤 카터가 ≪미국정부는 결코 광주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는다. 총대비태세에 있다≫고 위협한데서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5.18광주학살의 원흉이고 배후조종자이며 ≪한국≫민주화의 교살자라는 것을 뚜렷이 입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도리어 저들이 유익한 일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법정에서 5.18광주대학살만행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단죄하고 진상규명과 사죄 및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반미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유혈대참사가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더없이 유익하고 정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국민들이 5.18시민법정을 추진하기 위한 광주지역위원회의 결성을 열렬히 지지하며 계획대로 5월 18일 전남 도청에서 시민법정이 열려 광주학살원흉미국을 준열히 단죄고발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일

보수대연합추진움직임을 두고

정파를 달리하는 정치세력들의 연합은 선거때마다 의례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예요.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수대연합움직임을 두고는 운동권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있어요. 그 이유 전남대 김모학생의 글 들으며 우리 다같이 새겨봅시다.

16대 대선을 겨냥한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가열되는 속에 이 땅은 각종 협잡과 모략이 난무하는 이전투구장으로 화했다. 이런 속에서 정파를 초월한 정치모리배들의 연합도 일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자민련일각에서 일고 있는 보수대연합추진움직임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얼마전 이회창은 자기의 측근을 자민련의 정치모리배들에게 파하여 보수세력결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했다.

이회창의 사주를 받은 한나라당의 정치모리배는 자민련으로 찾아가 진보세력결집에 대항해 보수세력이 뭉쳐야한다느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누구와도 함께 일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는 귀맛좋은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정치철새들의 둥지인 자민련을 흔들어놓았다. 결과 지금 한나라당과 자민련일각에서는 보수세력간의 연합문제를 두고 찬반논의가 물끓듯하고 있으며 이같은 흐름은 보수세력결집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회 각계층 인사들이 주장하다시피 보수대연합추진은 위기의식을 느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궁여지책의 산물이라 할수 있다.

지금 한나라당내에서는 주류대 비주류간, 보수파대 소장파간의 대립으로 당내분사태가 장기적 성격을 띠고 표출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는 이회창대선필패론 주장은 그가 구축해온 당내조직기반을 밑뿌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대선고지에 오르기에는 너무도 힘이 빈약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권력야망은 버리지 않고 있다. 물에 빠진 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격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치적 적수들끼리 서로 얻고 없애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에 대한 야망을 현실화해볼 속셈밑에 이같은 연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욕에 환장이 되고 사기협잡에 이골이 난 정상배들의 추악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 보수대연합추진움직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침을 뱉고 돌아서기에는 극우보수세력들의 결집이 안고 있는 위험성은 너무나도 크다.

얼마전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자민련의 일부 의원나부랭이들을 꼬드겨 가진 ≪보수출정식≫을 규탄하며 통일연대가 발표한 성명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이 민족반역배들이야말로 집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미친 짓도 능히 할 수 있는 극악무도한 극우파시스트들이다.

이른바 ≪보수출정식≫이라는 주제로 후원의 밤행사를 가진 민족반역배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난해 8.15통일축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비롯하여 북과의 대화와 접촉, 단합과 통일을 지향해 나서는 사람들은 정신병환자라고 모독했는가하면 주한미군을 평화의 수호자, 평화사도라며 추어올렸다.

지금 극우보수세력은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는 현실앞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들의 매국배족행위를 그 무슨 애국심의 발현으로 포장하며 흩어져있는 보수세력의 결집력으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막아보려 꾀하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어 광분하는 이런 자들이 연합할 때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앞에는 더 큰 애로와 난관이 조성될 것이며 이 땅은 정치모리배들의 이전투구속에 사대매국과 반공, 반북, 파쇼와 부정부패의 난무장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보수대연합에 힘입어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배가 집권한다면 6.15공동선언이 날아나고 정세는 격화되어 우리 민족은 반세기여전 6.25때보다 더한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그럴진대 자주를 지향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 땅의 각계층 민중 모두가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을 희생하는 댓가로 부귀영화와 권세욕을 누리려는 극우보수세력들의 연합움직임을 좌시묵과할 수 있겠는가.

민족반역세력들이 결집을 꾀할수록 이 땅의 애국세력은 더더욱 굳게 힘을 합쳐 보수세력들의 연합흉계에 철퇴를 안기고 정치모리배들을 역사무대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보수대연합추진움직임을 두고≫ 전남대 김모학생의 글이였는데요.

새겨들을수록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말살하려는 흉심이 짙게 담겨진 보수대연합추진은 그 시초에서 분쇄해버려야겠다는 생각 절로 들어요. 단말마적 발악이라는 말도 있지만 민족반역배들이 아무리 연합을 꾀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보려고 획책해도 각계 민중의 단합된 힘앞에서는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겁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29일~30일

노풍에 버금가는 ≪옥풍≫ 일으킨다

민주노동당 이문옥 후보 서울시장 출마선언

이제 ≪옥석≫을 구분해 달라

민주노동당 부패방지위원장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을 천명하며 서울시장 후보 출마선언을 했다.

출마선언에 앞서 이상현 대변인은 ≪요즘 인터넷에 ≪옥석≫을 구분하자는 말이 유행이다≫며 이문옥 후보 지지를 이같이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권영길 대표 등 지도부, 이 위원장, 김종철 용산구청장 출마예정자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서울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로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질타했다.

부정부패 척결하기 위해 출마

이 위원장은 ≪이제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며 ≪서울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인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다≫며 ≪양심이 살아 숨쉬고, 상식이 통하는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 중심의 서울행정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애인들의 외침은 탁상행정에 묻히고 있다≫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서민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 시정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래로부터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총제적인 ≪서울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의 참여 등 참여와 평등, 공공성과 연대성을 통한 민주주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합법화,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

특히 이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진정한 서울시 ≪행정개혁≫을 이루겠다≫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위해 서울시장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환경과 서민복지를 위한 연대,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상시특별검사제 도입, 박정희 기념관 건립 저지를 위해 1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옥석을 구분하자≫는 말은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용어로 이문≪옥≫과 김민≪석≫을 구분하자는 뜻)

이준희기자
디지털말 2002/04/30

경기도지사 김준기 후보 출마기자회견 개최

4월 30일 경기도청 기자실(수원)에서는 범진보진영 경기도 지사 김준기 후보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개최 되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범진보진영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준기후보는 ≪제대로 된 한국진보정치로 민중의 희망으로 다가서겠다≫며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것은 ≪미군기지 없는 살기좋은 경기도, 노동자 농민 등 서민들이 살 맛 나는 경기도, 21세기 통일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가겠다≫며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지민기자
민중의 소리 2002/04/30

서천 시민단체들, 유권자 권리찾기 나섰다

오는 6.13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단체들이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한 자치문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칭 ≪유권자 권리찾기 서천군 시민모임≫(수석회장 함필주 · 월포교회 목사. 이하 유권자 권리모임)은 지난 21일 뉴스서천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다가오는 6.13 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유권자 권리모임≫은 이를 위해 주민여론수렴 위원회, 후보자 공약점검 위원회, 공명선거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후보자 토론회, 부정선거 감시, 공명선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유권자 권리모임≫은 여성유권자연맹, 지체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 YWCA 등 9개단체가 참여하는 여성단체 협의회,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지회, 서의회, LG 노동조합, 서천군어민회, 충남보육시설연합회 서천지회,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 농업경영인 서천군연합회 등 7개단체가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자체회의를 통해 가입의사를 밝힐 예정인데다가 ≪유권자 권리모임≫측도 지역 내 단체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어서 유권자 권리찾기 운동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함필주 수석회장은 ≪그동안 지방자치선거가 특정인들의 명예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오면서 주민들의 정치적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선거는 주민들이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제시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자치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내 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지역언론연대 뉴스서천
시민의 신문 2002/05/01

전국연합, 지방선거 후보 결정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숭실대학에서 개최된 전국연합 3차 중앙상임위에서는 전국각지역에 전국연합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31명의 전국연합 후보를 결정하였다.

전국연합은 후보와 관련 전국연합이 조직적으로, 실무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인가가 논의될 것이고, 실제 선거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연합 후보는 전국연합 소속 회원으로 무소속 또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소속단체의 추천으로 중상에서 결정하고, 지지, 지원 후보는 전국연합 회원이나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역, 부문 또는 의장단, 정당특위 추천으로 중상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최지민기자
민중의 소리 2002/04/27

한총련, ≪5월 축전 막지말라≫

범사회인대책위, 10기 한총련 공동기자회견

10돌을 맞는 한총련 출범식을 하루 앞둔 2일, 한총련합법적활동보장을위한범사회인대책위원회(범사회인대책위)와 10기 한총련은 느티나무카페에서 오전 11시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대학생 5월 축전의 평화적 개최보장≫과 ≪대의원들의 구속 · 수배반대≫를 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행사 개최지인 서울산업대학교가 노원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뒤라 대학본부를 상대로 한총련 행사보장을 요구하고 기자회견 후 산업대관계자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산업대총장은 29일 담화문을 통해 ≪국립대 행정책임자로서 국가에서 불법단체로 낙인한 한총련의 출범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와 야간강좌 등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 아파트주민피해, 한총련 출범식 종료 후 사용되는 억대단위의 청소비용 등을 문제삼으며 즉각적인 행사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사회인대책위 오종렬 상임대표는 ≪한총련 출범식에서 ≪한국대학생 5월축전≫으로의 명칭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 한총련이 사회적 인식을 배려해 인권과 환경, 남녀평등 조항을 첨가한 강령개정을 비롯해 기존 한총련만의 행사를 전국의 대학생축전으로 바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이적단체규정으로 인해 탄압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위가 나섰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거리 또는 원거리 검문검색 등 공안당국의 봉쇄조치 철회 △10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반대, 대의원 출두요구서 발송중단 △97년 이후 한총련 대의원 수배조치 해제 및 관련자 석방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3시부터 오종렬(범사회인대책위상임대표), 권오헌(전 양심수후원회대표), 박정기(전 유가협대표), (전 민가협)가 산업대학교 학생처장면담을 30분 가량 진행했다.

산업대학교 학생처장은 국립대에서 법적으로 이적규정된 한총련 행사를 막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시설보호요청의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원천봉쇄가 되지 않아 한총련 학생들이 학내에 들어온다면 환경보호 및 시설보호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내로 경찰이 진입하거나 수배자연행을 하는 행동을 한다면 산업대학교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만 학생들이 깨끗하게 행사를 치러줄 것≫을 거듭 부탁했다.

한편, 학생축전준비에 한창인 학생들은 학생회관, 노천극장, 대운동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선전물제작, 몸짓 · 노래 준비로 정신이 없어 보였다. 6.5km너비의 산업대 교정은 축전을 알리는 자보와 플랜카드로 가득찼고 민주동문회를 비롯한 각계 단체에서 보내온 한총련 합법화와 5월축전의 평화적 개최를 지지하는 글들이 눈에 띄였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5/02

민족의 쌀 통일로 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오늘(2일) 광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300만석을 대북에 조기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전국 차량 선전에 나섰다.

김광옥(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의장은 대회사에서 ≪올해안에 500만석 이상 대북지원이 될 것을 믿는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으며 김정길(전국연합 광주전남연합)의장은 ≪정부가 포기한 이 저주받은 쌀이 민족의 쌀로 통일의 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전농 차량 선전단은 순천과, 광주에서 각각 1톤트럭 8대와 7대에 쌀을 나눠싣고 출발, 창원과 광주로 이동했으며 차량선전단은 오는 3일 서울 국회 앞에서 만나 전농, 통일연대 주최로 WTO 쌀 수입개방 저지, 대북 쌀 300만석 조기지원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농은 쌀 대북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쌀 한되씩을 모으는 이른바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을 1월부터 추진해 왔으며 전국 8개도에서 모은 쌀은 120톤(약 3000가마) 2억 4천만원 으로 예상되며 오는 15일 인천항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다.

전농 전북연맹은 1시경 광주도청에서 출발한 광주전남연맹 차량과 합류, 전주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4.18 쌀 산업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규탄했다. 전북에서는 강희남목사(전 범민련 상임의장)이 참석해 눈길을 모았는데, 이날 강목사는 ≪여러분들은 누구도 해 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격려하고 ≪노동자 농민을 다 죽이는 현 정부가 어찌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나≫며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했다.

현석훈기자
민중의 소리 2002/05/02

자주여성회(준) 발족식

자주여성회 준비위원회가 27일 오후 3시 웨딩부페홀 3층에서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윤주 성남지부장, 성남 여성의 전화 신연숙 회장,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구협의회 양태경 의장, 분당 푸른학교 이미라 교사대표 등이 축사를 통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선미 자주여성회(준)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족 자주에 앞장서고 여성의 자주성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주여성회(준)의 취지를 밝혔다. 신연숙 성남 여성의 전화 회장은 축사에서 ≪보다 진보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려는 단체가 생겨서 너무 반갑다≫며 ≪자주여성회가 준비위원회가 아닌 정식 여성회로 하루 빨리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주여성회(준)는 지난 16일 김선미 푸른학교 교장, 김미희 시의원 등 12명이 주축이 돼 결성했으며 내년 4월 200여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뒤 정식적으로 자주여성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선미 자주여성회(준) 준비위원장을 만나 향후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자주여성회(준)의 목적과 취지는.

◎지난 16일 12명의 준비위원들끼리 모여 결성했다. 성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여성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나 정치현안 등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려고 한다.

여성 정치사업이나 미군기지 반환사업, 여성인권문제, 여성 강좌사업 등 다양하게 여성참여의 기회와 폭을 넓힐 생각이다.

▷자주여성회(준)는 어떤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인가.

◎오는 5월 둘째주부터는 여성학교를 시작한다.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자주적으로 여성들이 일어설 수 있는 주체적인 삶에 대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여성대학을 준비해 문화, 정치, 여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주여성회(준)는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단순히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반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자주여성회(준)가 정식으로 여성회로 출범하기 위한 과정 동안 어떤 준비에 중점을 둘 것인가.

◎1년동안 조직 확대와 강화사업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인 자주여성들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자주여성회는 단순히 지역운동차원이 아닌 전국적인 여성들의 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지역의 문제보다는 여성의 주체적인 문제를 통해 공유점을 서로 인식하고 논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부를 결성해낼 생각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진출도 중요하지만 보다 주체적인 삶을 스스로 확보해내는 점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김기호기자
민중의 소리 2002/04/29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반제자주역량 (3)

차 례

(1) 북(조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전술

(2) ≪악의 축≫ 폭언이 노린 세 가지 목표

(3) 곤경에 빠지고 있는 부시 행정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4) 미국은 결국 무엇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생산, 보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는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동원하여 전 세계를 통제・지배하는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동량구조(棟樑構造)다. 반제혁명국가들과 반미국가들이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게 될 때, 또는 대량파괴무기가 미국의 하위동맹국들에게 확산될 때,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만일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어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는 경우, 미국은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반제혁명국가들과 반미국가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힘들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파괴무기로 무장한 동맹국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나 제각기 독자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만일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침략전쟁 도발책동이 반제혁명국가들, 반미국가들의 강한 군사력에 의하여 억제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구축해놓은 자기의 신식민지체제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자기를 추종하던 하위동맹국들이 이탈하는 경우, 현대 제국주의진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는 단순히 군사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21세기에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존폐문제가 걸려있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확산체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21세기초에 부시 행정부는 지금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현대 제국주의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가 존폐의 위기상황으로 몰려가게 된 근본 원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군혁명전략으로 영도하여 세계 정치무대에 반제군사강국으로 등장시켰다. 북(조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도발책동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이 대량파괴무기를 독점함으로써 구축・유지해온 현대 제국주의진영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와 남(한국) 지배권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인 양자택일의 갈림길로 떠밀려가고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은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을 발휘하여 부시 행정부를 양자택일의 벼랑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남(한국) 지배권을 장악・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면 남(한국) 지배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제국주의진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워싱턴에 포진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략가들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선택의 벼랑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장악・유지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는 곤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닉슨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이 베트남전쟁에서 퇴각하는 전략문제를 놓고 처해 있었던 곤경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30년 전의 미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중미 정치협상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워싱턴을 주름잡았다는 제국주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당시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수상과 정치협상을 벌이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 기밀해제된 미국의 비밀자료에 의하면, 1971년 7월 9일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에서 키신저는 북베트남과의 종전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과 베트남전쟁이 끝나면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철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고, 그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로서 반드시 중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 회담에서 키신저는 ≪우리의 입장은 남베트남에서 어떤 특정한 정부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보다시피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 전복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 뒤에 그 정부가 전복되더라도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뉴욕타임스 2002년 2월 28일자) 키신저는 1974년에 당시 대통령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에게 제출한 1급 비밀 비망록에서 미국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1977년 초까지 대만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하면서 그와 더불어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1999년 5월 15일자)

1971년에 있었던 저우언라이와 키신저의 비밀회담 이후의 동아시아정세는 그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재편되었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남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여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정치협상에서 ≪베트남에서의 평화재건 및 전쟁종식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자마자 3월 29일에 ≪미국-남베트남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베트남 지배권을 포기하였고, 6년뒤인 1979년에는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함으로써 대만 지배권을 포기하였다. 남베트남 지배권의 포기는 종전과 평화, 자주와 통일로 이어졌고, 대만 지배권의 포기는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단절시키고, 대만에 주둔시켰던 미군을 1979년안에 모두 철수시키고, 미국이 대만과 맺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시키는 조치로 실행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는 과정과 중미 수교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중미 수교협상에서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실제 그 약속대로 포기하였던 것이다.

2002년 2월 부시가 남(한국)을 방문했던 때로부터 꼭 30년전인 1972년 2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Richard M. Nixon)과 국가안보담당보좌관 키신저는 중국을 방문하였고, 상하이에서 중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공동성명은 그 뒤로 8년동안 진행되었던 중미 수교협상의 근거가 되었다.

1978년 12월 중미 수교를 위한 제2차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1979년 1월 1일 중미 두 나라는 8년 동안의 수교협상끝에 국교를 수립하였다.

닉슨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은, 베트남민족의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에 떠밀려 베트남전쟁에서 패퇴하면서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을 한꺼번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남베트남과 대만에 대한 지배권의 전략적 포기를 확인하였던 중미 비밀회담이 열렸던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정권은 한(조선)민족의 강력한 반제자주역량에 떠밀리면서 비확산체제 유지냐 아니면 남(한국) 지배권의 포기냐 하는 전략적 택일의 궁지에 빠져들고 있다.

나는 미국이 30년전에 그러했듯이 결국 비확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 나서지 않고 공갈발언이나 하면서 계속 버틸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두 번째 인공위성을 탑재한 ≪백두산 2호≫의

→

발사준비를 명령할 것이다.

만일 부시 행정부가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온 뒤에도 ≪확실한 검증≫이요, ≪재래식 군비감축≫이요 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남(한국) 지배권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경우, 그 협상은 결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발사체 ≪백두산호≫의 연속발사로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중심부에는 결국 붕괴의 파열구가 뚫리게 될 것이다.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비확산체제 존폐문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초강대국의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이따금 공갈발언이나 내뱉는 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부시 행정부는 30년전에 닉슨 행정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적대국과의 정치협상에 끌려나와 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앞으로 조미 정치협상이 진행되는 몇 년동안의 과정에서 두 나라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결국 북(조선)이 대량파괴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거나 수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조선)반도의 통일과정에 간섭하지도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북(조선)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말은 조미 국교수립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를 미국의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최대 문제로, 더 나아가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정치문제로 여기고 있는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를 이용하여 한(조선)민족이 미국의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통일된 자주강국을 건설하는 민족사 최대의 과업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준동을 억제하는 반제자주위업의 전략적 과제를 실행하려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이 시종 주도하게 될 조미 정치협상에서는 한(조선)민족의 자주위업과 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현대 제국주의진영의 준동에 억제력을 발휘하는 승전보가 들려올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전략에 의하여 비확산체제의 존폐문제가 결정될 ≪운명의 시간≫ 2003년이 가까워올수록 부시 행정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악의 축≫ 폭언이 나왔던 2002년 1월 29일 미국 연방의회 상하양원 합동연설에서 부시는 ≪시간은 우리편에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부시가 ≪악의 축≫ 폭언을 내뱉은 그 다음날 백악관 대변인 애리 플라이셔(Ari Fleischer)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명의 시간≫에 쫓기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차츰 풀이 죽고 기가 꺾이어 조미 정치협상에 끌려나올 것이며, 결국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의 유지와 남(한국) 지배권의 포기를 맞바꾸게 될 것이다.

한때 ≪뉴욕타임스≫ 논설위원이었으며 한(조선)반도 군사문제에 관한 권위있는 집필활동을 하고 있는 리온 시걸은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 2001년 6월 23일자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조미 정치협상의 경험에 관하여 이러한 흥미로운 평가를 남겼다.

≪미국의 역대 모든 행정부는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거부(denial), 분노(anger), 흥정(bargaining), 좌절(depresson), 수용(acceptance)의 다섯 단계를 밟아왔다. 부시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북협상에서 발을 잘못 들어놓았던 경험을 상기할 때, 새 행정부도 그들처럼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지켜보자니 괴롭다.≫

과연 리온 시걸이 괴로움을 안고 지켜보고 있는 대로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이라는 폭언을 내뱉으면서 ≪거부≫와 ≪분노≫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며, 적어도 올해 안에 ≪흥정≫의 단계로 들어설 것이다. ≪흥정≫의 단계는 ≪운명의 시간≫ 2003년에 가서 ≪좌절≫의 단계로 이어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수용≫의 단계로 마감될 것이다.

부시는 마지막 ≪수용≫의 단계에서 남(한국) 지배권을 포기하고 한(조선)민족의 평화통일과정에 개입하지도 간섭하지도 말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조미 정치협상을 앞두고 있는 부시가 1970년대의 중미 정치협상에 나왔던 두 명의 미국 대통령 닉슨과 포드의 발자취를 다시 밟아가게 될 정치적 행로는 그렇게 예비되고 있다.

(끝)

한호석(통일학연구소장)
민 2002년 4월호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10선